

2024년 서울시(1차) 9급 한국사(A책형)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③	③	①	④	③
6	7	8	9	10
②	②	①	③	①
11	12	13	14	15
②	④	③	②	④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③	④

<01번 오답 해설>

ㄹ. 청동기 시대에는 마을 주변에 방어를 위해 목책이나 환호를 둘렀다. 옳은 설명이다. 도랑인 환호(環濠)와 목책(木柵), 망루(望樓) 등은 청동기 시대의 마을 방어 시설[유적]이다. 환호는 취락[마을]의 주위에 일종의 도랑을 파서 돌리는 시설물이고(환호를 갖춘 취락을 '환호취락'이라 함), 목책은 말뚝 따위를 쭉 잇따라 박아 만든 울타리이다. 망루는 감시, 조망을 위하여 잘 보이도록 높은 장소에 또는 건물을 높게 하고 사방에 벽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를 가리킨다.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사유 재산과 계급이 발생하고 정복 활동이 활발해진 탓이다.

이상에서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다.

01 - 청동기 시대의 모습

1. <보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청동기가 보급된 이후에도 농기구는 주로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다.
- ㄴ. 명도전, 오수전 등이 출토되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 ㄷ.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형 토기를 만들었다.
- ㄹ. 청동기 시대에는 마을 주변에 방어를 위해 목책이나 환호를 둘렀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정답> ③

청동기 시대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ㄱ. 청동기가 보급된 이후에도 농기구는 주로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다. 옳은 설명이다.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농업이 발전하였는데(밭농사 중심,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 시작),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석제 농기구)와 나무(목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청동기는 주로 의례용으로 쓰였다.

ㄴ. 명도전과 오수전*은 초기 철기 시대에 유통된 중국의 화폐이다.

*명도전(明刀錢)은 중국 전국 시대에 사용된 화폐이다(연나라, 제나라). 손칼 모양의 청동 화폐로 '명(明)'자가 장식되어 있어 '명도전'이라 부른다. 또 오수전(五銖錢)은 '오수(五銖)'의 두 글자가 표시된 중국의 화폐로, 한 무제 때 처음 주조되어 위진 남북조, 수 대에 걸쳐 사용되었다(초기에는 동전이었던가 후대에는 철전도 주조).

ㄷ.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형 토기를 만들었다. 옳은 설명이다.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기이다(제사에서 사용하는 '제기'라는 설 있음).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아 비파형 동검이라 부른다. 중국 랴오닝[요녕]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어 '랴오닝식 동검', 고조선(高句麗)을 상징하는 유물이라는 뜻에서 '고조선식 동검'이라고도 부른다. 미송리형[미송리식] 토기 역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중 하나로 민무늬 토기의 한 형식이다. 밑바닥이 납작하고 몸체는 통통한 편이며 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져 그 생김새가 마치 표주박의 아래위를 잘라버린 것처럼 생겼다.

02 - (대한) 독립 의군부

2. <보기>의 (가)에 들어갈 단체의 이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 시기의 독립운동은 대체로 무력 항쟁을 기본으로 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거나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독립 후의 국가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의 회복을 주장하는 측과 주권재민의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측의 노선 차이가 있었다. 대한제국의 회복을 추구하는 대표적 단체는 (가)를 들 수 있는데, 한말에 최익현과 더불어 의병 전쟁에 참가한 바 있던 임병찬이 주도한 이 단체는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 ① 신민회
- ② 대한광복회
- ③ 독립의군부
- ④ 대한광복군정부

정답> ③

'이 시기의 독립운동은 대체로 무력 항쟁을 기본으로 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거나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러나 독립 후의 국가에 대해서는 대한 제국의 회복을 주장하는 측과 주권재민의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측의 노선 차이가 있었다. 대한 제국의 회복을 추구하는 대표적 단체는 (가)를 들 수 있는데, 한말에 최익현과 더불어 의병 전쟁에 참가한 바 있던 임병찬이 주도한 이 단체는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에 들어갈 단체는 돈헌 임병찬(1851~1916)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한 복벽주의(復辟主義)* 단체인 (대한) 독립 의군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12.9~1913.5). 독립 의군부는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복벽주의(復辟主義): 1912.9~1913.5): '복벽'이란 물러났던 임금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을 뜻하는 바 대한 제국의 군주정 회복을 목표로 한 운동이나 사상을 가리킨다.

오답 해설>

① 신민회는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1878~1938)와 우강 양기탁(1871~1938)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결성된 항일 비밀 결사이다(1907.4~1911.9). 국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애국 계몽 활동(교육 구국운동, 계몽 강연 및 서적·잡지 출판 운동, 민족 산업진흥 운동 등)과 독립군 양성 활동 등을 펼쳤다. 한일 병탄 이후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1911.9).

② 대한 광복회는 1915년 7월 대구에서 (풍기) 광복단과 조선 국권 회복단의 일부 인사가 통합하여 비밀리에 결성되었다(~1918.1). 의병장 허위(1854~1908)의 문하인 고현 박상진(1884~1921)을 주축으로 하였으며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1918년 1월에 전국의 조직망 발각).

④ 대한 광복군 정부는 일종의 망명 정부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되었다(1914년 상반기경으로 추정). 보재 이상설(1870~1917)이 대한 광복군 정도령(正都領)을, 성재 이동휘(1873~1936)가 부도령을 맡았다.

03 - 거란의 침입

3.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서희는 거란과 담판을 해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 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침입해 왔다.
- ㄷ. 개경이 함락되자 현종이 나주로 피난하였다.
- ㄹ.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을 격파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ㄹ - ㄴ - ㄷ
- ③ ㄴ - ㄱ - ㄹ - ㄷ
- ④ ㄴ - ㄷ - ㄹ - ㄱ

정답> ①

- ㄱ. 고려의 문신 서희(942~998)가 거란의 적장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은 고려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거란의 제1차 침입 시).
- ㄴ. 고려 목종 12년(1009) 초에 있었던 (서북면도순검사) 강조(?~1010)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침입해 온 것은 현종 원년인 1010년의 일이다(거란의 제2차 침입, 1010~1011).
- ㄷ.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현종이 (전남) 나주로 피난한 것은 현종 2년인 1011년 초의 일이다(거란의 제2차 침입 시)(1012년 2월에 환도). 참고로 이때 현종은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하였다(~선종 4년인 1087년까지).
- ㄹ. 문신 강감찬(948~1031)의 지휘로 거란의 대군을 귀주에서 격파한 것은 현종 10년인 1019년의 일이다(귀주대첩)(거란의 제3차 침입 시, 1018~1019).

이상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ㄱ-ㄴ-ㄷ-ㄹ'이 된다.

<04번 오답 해설>

③ (다)는 '흙양전'이다. 전시과나 과전법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전시과 중 하나인 '구분전'이라 하였으므로 틀렸다. 구분전은 자손이 없는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04 - 과전법과 직전법

4. <보기>의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선 왕조 개창 당시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가)을/를 시행하였다. 이는 경기 지방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관리 사후 지급받은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리 사후 아내가 재혼하지 않았으면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나) (으)로 지급했으며, 부모가 모두 죽고 자손이 20세 미만이면 이들의 부양을 위해 (다) (으)로 주어졌다. 이후 세조는 이러한 제도를 고쳐 (라)을/를 시행하여, 그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 ① (가)는 '과전법'으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 것이다.
- ② (나)는 '전시과'로,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 ③ (다)는 '구분전'으로,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 ④ (라)는 '직전법'으로, 그 시행에 따라 수신전이 폐지되었다.

정답> ④

'조선 왕조 개창 당시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가)을/를 시행하였다. 이는 경기 지방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관리 사후 지급받은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하지만 관리 사후 아내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나) (으)로 지급했으며, 부모가 모두 죽고 자손이 20세 미만이면 이들의 부양을 위해 (다) (으)로 주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이후 세조는 이러한 제도를 고쳐 (라)을/를 시행하여, 그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송당 조준(1346~1405)의 건의로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에 제정된 과전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가)]. 그리고 (나)는 '수신전'을, (다)는 '흙양전'을 가리킨다. (라)는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지급한 '직전법'을 가리킨다(1466, 세조 12).

직전법 시행 시 수신전과 흙양전이 모두 폐지되었다. 그리고 지급액도 과전(법)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과전법'이다. 그리고 과전법은 시정 전시과(976, 경종 원년)와 마찬가지로 현직 관리뿐 아니라 전직 [산직] 관리들에게도 지급하였다.

② (나)는 '수신전'이다. 전시과가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는 것은 맞지만 '전시과'라 하였으므로 틀렸다.

*전지(田地)와 시지(柴地): 전지는 말 그대로 논과 밭을 이르는 말이고, 시지는 땔나무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급했던 토지를 가리킨다. 시지는 땔나무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대개 수도인 개경 부근에 위치하였다.

05 - 대한 제국 말의 서적과 인물

5. <보기>에서 서적과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을 지어 불교를 한층 현대적이고 사회개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고 했다.
- ㄴ. 장지연은 『동사강목』을 지어 서양식 역사 서술 체계를 적극 도입하였는데 이를 신사체(新史體)라 불렀다.
- ㄷ. 신채호는 『독사신론』 등의 사론을 발표하여 만주와 부여족을 중심에 둔 새로운 역사 체계를 세우기 시작했다.
- ㄹ. 『말의 소리』를 지은 주시경은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하였는데, 이것이 뒷날 조선어연구회의 모체가 되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정답> ③

ㄱ. 만해 한용운(1879~1944)은 1910년대 초에 조선 불교의 개혁을 위해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한 바 있다(1910년 탈고, 1913년 간행).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17장으로 이루어진 각 항목에서 한용운은 불교의 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승단의 제도와 의식, 사찰의 조직, 승려의 취처(聚妻) 문제에 이르기까지 조선 불교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한용운은 훌륭하게 유신하는 자는 훌륭하게 파괴하는 자라 하여, 기존의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깨뜨려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낡은 습관을 새로운 세대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임을 역설하였다.

ㄴ. 『동사강목』은 조선 정조 2년인 1778년에 순암 안정복(1712~1791)이 지은 역사서이다(편년체 역사 서술의 한 형식인 강목체* 사서). 고조선에서 고려 공양왕까지를 다루었으며, 정통 국가·정통 군주를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즉 기자 조선과 마한, 통일 신라, 고려를 정통 국가로, 마한이 멸망한 뒤의 삼국 시대는 정통 국가가 없는 시대로 보았다. 그리고 1907년부터 전통적인 편년체에서 벗어나 서양식 역사 서술 체계(예를 들어 '상고사-중고사-근고사' 또는 '태고사-상고사-중고사-근세사' 등으로 시기 구분)를 도입한 '신사체(新史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

는데[백당 현채(1856~1925)의 『중등교과 동국사략』을 신사체를 시도한 최초의 한국사 교과서로 봄], 위암 장지연(1864~1921)이 관여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후 황성신문 관련 지인의 신사체 책에 장지영이 교정을 한 적은 있다[석농 유근(1861~1921)의 『초등본국역사』, 1908]. 장지연이 역사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국유사』, 『일사유사』, 『대한최근사』, 『대동기년』 등의 저서가 있는 것으로 소개되지만 장지연은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유학에 관심을 가진 언론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목체: 역사를 연·월·일순에 따라 강과 목으로 기록한다. 우리나라에서 강목체 역사 서술은 성리학이 발전한 17세기 이후 나타났으며,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1672, 현종 13), 안정복의 『동사강목』(1778, 정조 2) 등이 대표적이다.

ㄷ. 단재 신채호(1880~1936)가 민족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둔 『독사신론』을 발표한 것은 1908년 8월의 일이다(~1908.12)(『독사신론』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미완성 사론). 여기서 신채호는 기자와 위만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역사 인식 체계를 거부하고 단군에서 부여, 고구려로 계승되는 고대사 인식 체계를 제시하였다. 즉 한민족은 부여족, 선비족, 지나족, 말갈족, 여진족, 토족 등 여섯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단군 자손인 부여족이 다른 다섯 종족을 정복하고 흡수함으로써 동국(東國) 역사의 주류가 되었다고 보았다.

ㄹ. 개화기의 한글학자 한힌샘 주시경(1876~1914)은 학부 내에 설치된 국문 연구소의 연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문법을 정리하였다(1907.7). 다수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말의 소리』는 1914년에 편찬하였다. 국어 연구 학회는 순종 2년인 1908년 8월에 국어를 연구할 목적으로 조직한 학술 단체이다(~1911.9).

이상의 서적과 인물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06 - 삼국 시대의 주요 사건들

6.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진대법을 실시했다.
- ㄴ. 백제가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 ㄷ.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했다.
- ㄹ.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켜 영토에 편입했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ㄴ - ㄹ - ㄷ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ㄴ - ㄷ - ㄱ - ㄹ

정답> ②

ㄱ. 고국천왕이 을파소(?~203)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대법(賑貸法)을 실시한 것은 재위 16년인 194년의 일이다[고국천왕(재위 179-197), 제9대].

ㄴ. 백제가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것은 371년(백제 근초고왕 26/고구려 고국원왕 41) [백제 근초고왕(재위 346-375), 제13대/고구려 고국원왕(재위 331-371), 제16대].

ㄷ.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진흥왕 23년인 562년의 일이다[진흥왕(재위 540-576), 제24대].

ㄹ. 신라가 [장군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켜 영토에 편입한 것은 지증왕 13년인 512년의 일이다[지증왕(재위 500-514), 제22대].

이상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ㄱ-ㄴ-ㄹ-ㄷ'이 된다.

<07번 오답 해설>

③ 천태종을 개창하였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한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다(1097, 속종 2).

④ 통일 신라 이전 고승 30여 명의 전기, 즉 『고승전』을 지은 인물은 진골 귀족 출신의 김대문(?~?)이다(7세기 말~8세기 초). 고려 인종 무렵까지 전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다. 고려 시대 각훈(?~?)이 지은 『해동고승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215, 고종 2).

07 - 불일보조국사 지눌

7. <보기>의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 모임이 파한 연후에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동사(同社)를 결성하고 항상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게 하기에 힘쓰고 예불과 독경을 하고 나아가서는 노동하기에도 힘쓰자. 각기 소임에 따라 경영하고 인연에 따라 심성을 수양하여 한평생을 자유롭게 지내며, 멀리 달사와 진인의 고행을 좇는다면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

- ① 불교사를 중심으로 설화와 야사를 수록한 역사책을 저술하였다.
- ②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바탕으로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천태종을 개창하였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 ④ 통일신라 이전 고승 30여 명의 전기를 지었다.

정답> ②

'이 모임이 파한 연후에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동사(同社)를 결성하고 항상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게 하기에 힘쓰고 예불과 독경을 하고 나아가서는 노동하기에도 힘쓰자'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각기 소임에 따라 경영하고 인연에 따라 심성을 수양하여 한평생을 자유롭게 지내며, 멀리 달사와 진인의 고행을 좇는다면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의 글을 쓴 인물은 고려의 고승,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자료는 유명한 '권수정혜결사문'으로 지눌은 고려 명종 20년인 1190년 (경북 영천) 팔공산 거조사에서 여러 불제자와 함께 법석을 열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즉 정혜를 쌍수할 것을 결사하였다. 이때 지은 것이 권수정혜결사문이다. 여기서 지눌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행자들이 갖기 쉬운 의문을 제시하여 그에 답한 다음, 정혜결사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바탕으로 결사 운동을 전개한 인물이 바로 불일보조국사 지눌이다.

오답 해설>

① 불교사를 중심으로 설화와 야사를 수록한 역사책, 즉 『삼국유사』를 저술한 인물은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이다(1285, 고려 충렬왕 11).

08 -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

8. <보기>의 특별담화문을 발표한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는 주민 개개인의 건설적 에너지가 지역 발전으로 수렴이 되고, 나아가서 국가발전으로 이바지하는 데 참뜻이 있습니다.”

- 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하나회를 해체하였다.
- ②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3당 합당을 하였다.
- ③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 ④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정답> ①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전면적인 지방 자치를 실시하게 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방 자치는 주민 개개인의 건설적 에너지가 지역 발전으로 수렴이 되고 나아가서 국가 발전으로 이바지하는 데 참뜻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6월의 일이다(1995.6.27,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실시). 주어진 자료는 '지방 선거 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이다(1995.5.30).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발표된 다음날인 1993년 8월 13일부터 전격 실시되었다. 또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출범 초인 1993년 3월부터의 일이다(김영삼 대통령이 권영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숙청 주도). 이때 하나회 출신인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이 전격 보직 해임되고 비하나회 출신이 임명되었다. 이후 4월에 2~4차 숙청이 이루어졌다(주어진 자료는 4월 2일 2차 숙청 때의 일, 안병호 수방사령관과 김형선 특전사령관 경질). 같은 해 5월에는 1979년 12·12에 연관된 장성들이 전역 조치되었다(이후 1994년 10월까지 진행).

오답 해설>

②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3당 합당을 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0년 1월의 일이다(1990.1.22).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줄여서 '민자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였다(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

③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의 일이다.

④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5월의 일이다(~2009.1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사 보고서 발간 및 사료 편찬 등의 일을 하였다.

<10번 오답 해설>

오답 해설>

② 『속대전』과 『속오례의』 등을 편찬하여 문예 부흥의 기틀을 마련한 왕은 조선의 제21대 왕인 영조(재위 1724-1776)이다[각 1746(영조 22)/1744(영조 20)].

③ 백두산 아래에 정계비를 설치하여 청나라와 경계선을 정한 것은 조선 숙종 38년인 1712년의 일이다.

④ 1760년(영조 36) 청계천 준설 사업을 실시하여 홍수에 대비한 왕은 영조이다.

09 - 신민회

9. <보기>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 결사 단체로, 국권을 회복한 뒤 공화정체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새롭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 ② 교육·산업 진흥을 위한 지회 설치
- ③ 대성학교, 오산학교 설립
- ④ 금주·금연을 통한 모금 운동 전개

정답> ③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 결사 단체로, 국권을 회복한 뒤 공화정체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새롭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단체는 1907년 4월에 결성된 신민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신민회는 평양에 대성 학교를, 평북 정주에 오산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각 1908.9/1907.12).

오답 해설>

- 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에 앞장선 단체는 보안회이다(1904.7.13). 보민회(保民會)라고도 불렀다.
- ② 교육·산업 진흥을 위한 지회를 설치한 단체는 1906년 4월에 결성된 대한 자강회이다(1905년 5월에 조직된 헌정 연구회 확대 개편하여 발족). 대한 자강회는 월보를 간행하고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07년 8월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해산당하고 말았다.
- ④ 금주·금연을 통한 모금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한 국채 보상 운동 기성회이다(1907.2~1908.7). 국채 보상 운동은 대구에서 김광제(1866~1920), 서상돈(1850~1913)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당시 항일 언론들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0 - 조선 정조의 정책

10. <보기>의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창덕궁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개혁정치 중심 공간으로 삼았다.
- 화성을 건설하고 자주 화성 행차에 나섰다.
-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을 추진하였다.

- ① 『병학통』과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다.
- ② 『속대전』과 『속오례의』 등을 편찬하여 문예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③ 백두산 아래에 정계비를 설치하여 청나라와 경계선을 정하였다.
- ④ 1760년 청계천 준설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답> ①

'창덕궁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개혁 정치의 중심 공간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화성을 건설하고 자주 화성 행차에 나섰다'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이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보기>의 정책을 실시한 왕은 조선의 제22대 왕인 정조(재위 1776-1800)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 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고, 수원 화성을 건설한 것은 재위 18년인 1794년부터 재위 20년인 1796년의 일이다(1794.2~1796.9)(사적 제3호)(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 시전 상인의 특권[금난전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한 것은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

군사 훈련 교범인 『병학통』과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된 것은 각 정조 즉위년인 1776년과 재위 14년인 1790년의 일이다. 『병학통』은 형조판서 겸 지훈련원사인 장지향이 편찬하였다. 『무예도보통지』는 『병학통』을 비롯한 『병학지남』, 『속병장도설』 등의 여러 병서들을 다시 집대성하여 편찬한 것으로 규장각 검서관인 이덕무(1741~1793)와 박제가(1750~1805)가 장용영 소속 장교 백동수(1743~1816) 등과 함께 작업하였다.

<6쪽 08번 아래 오답 해설>

11 -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관련 사들

11.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병인박해 - (가) - 문수산성·정족산성 전투 - (나)
- 신미양요 - (다)

(가) (나) (다)

- ① 제너럴셔먼호 사건 척화비 건립 오페르트 도굴 사건
- ② 제너럴셔먼호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척화비 건립
- ③ 오페르트 도굴 사건 제너럴셔먼호 사건 척화비 건립
- ④ 오페르트 도굴 사건 척화비 건립 제너럴셔먼호 사건

정답> ②

병인박해가 일어난 것은 조선 고종 3년인 1866년 2월의 일이다. 프랑스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 많은 천주교 신자가 적발되어 처형되었다. 불과 수개월 사이에 국내 신도 8,000여 명이 학살되었는데, 해를 넘어 1860년대 내내 진행되었다. 이때 탈출에 성공한 리델 신부(1830~1884)가 텐진에 있던 프랑스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1812~1882)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로즈 제독은 이를 빌미로 같은 해 10월 조선을 침략하였다(병인양요, 1866.10).

*프랑스 주교 2명: 베르뇌(Berneux, 張敬一, 1814~1866) 주교와 다블뤼(Daveluy, 安敦伊, 1818~1866) 주교를 가리킨다. 베르뇌 주교는 서울의 새남터에서 처형되었고, 다블뤼 주교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리에서 처형되었다.

문수산성·정족산성 전투이 일어난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10월에 발생한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고(1866.10), 양헌수(1816~1888)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1866.11).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의 아시아 함대 사령관인 존 로저스 제독(1812~1888)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하는, 이른바 신미양요가 일어난 것은 고종 8년인 1871년 4월(양력 5월)의 일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7월의 일이다(1866.7.21).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의 무역선[상선(商船)]으로 평양의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폭압적으로 통상을 요구하는 만행을 저지르다 평양 관민들에 의해 불태워졌다(마침 박규수

가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 중, 평양 주민 12명이 사상하였고, 선원 24명은 화재로 전원 사망). 이 사건은 이후 미국의 아시아 함대 사령관인 존 로저스 제독(1812~1888)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하는, 이른바 이후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빌미[계기]가 되었다.

독일계 유대 상인인 오페르트(1832~1903)가 통상 수교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흥선 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 5월(양력 6월)의 일이다('오페르트 도굴 사건' 또는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 결과적으로 오페르트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는 서양에 대한 경계심만 더욱 강화시키고 말았다.

신미양요 직후 흥선 대원군의 주도로 서울[한성]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진 것은 고종 8년인 1871년 5월의 일이다(서울 종로 네거리, 경기도 강화, 경상도 동래군·함양군·경주·부산진 등). 참고로 임오군란 이후 대원군이 청에 납치되어가고, 정부가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되자 전국의 척화비들은 철거되거나 파묻혀졌다.

**척화비 비석 표면에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주문(注文)을 큰 글자로 새기고, '戒我萬年子孫 丙寅作辛未立(우리들의 만대자손에게 경계하노라.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우다)'라고 작은 글자로 새겼다.

이상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 '(나) 오페르트 도굴 사건', '(다) 척화비 건립'이 된다.

12 -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12.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대원군은 이 ㉠ 변란으로 인하여 다시 정권을 잡았으며, 크고 중요한 벼슬자리가 많이 바뀌었다. …… 대세를 좇는 무리들은 다시 운현궁으로 돌아오니 수레와 말이 구름과 같았다. 민씨 일가는 모두 숨어서 나타나지 못했다. …… 왕후는 충주에 있으면서 몰래 사람을 보내 소식을 보냈으며, 민태호에게 밀사를 보내 청국 정부에 급박함을 알리도록 명하였다.
- “가히 아까운 일이다. 일류 재사(才士)가 일본인에게 팔려 이러한 ㉡ 큰일을 저질렀다.” …… “저들 일본인이 어찌 다른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남의 아름다운 덕을 진실로 도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겠는가 …… 김옥균이 망명하여 도쿄에 있으면서 다시 거사를 도모하려 했으나 저들은 이내 추방하여 오가사와라 섬에 유폐시켰으니 어찌 그를 아껴서 도와준다고 하겠는가.”

- ① ㉠의 책임을 물어 청은 흥선대원군을 자국으로 압송하였다.
- ② ㉠의 결과,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 ③ ㉡의 영향으로 청과 일본은 향후 조선에 군대 파병 시 서로 알린다는 내용의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④ ㉡의 결과, 조선은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여 청이 조선에 간섭하는 근거가 되었다.

정답> ④

위의 자료에 '대원군은 이 변란으로 인하여 다시 정권을 잡았으며, 크고 중요한 벼슬자리가 많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대세를 좇는 무리들은 다시 운현궁으로 돌아오니 수레와 말이 구름과 같았다. 민씨 일가는 모두 숨어서 나타나지 못했다. …… 왕후는 충주에 있으면서 몰래 사람을 보내 소식을 보냈으며, 민태호에게 밀사를 보내 청국 정부에 급박함을 알리도록 명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 변란'은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발생한 임오군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82.6.9.~7.13(음력)/1882.7.23~8.30(양력)].

아래의 자료에는 '가히 아까운 일이다. 일류 재사(才士)가 일본인에게 팔려 이러한 큰일을 저질렀다. …… 저들 일본인이 어찌 다른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남의 아름다운 덕을 진실로 도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겠는가'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김옥균이 망명하여 도쿄에 있으면서 다시 거사를 도모하려 했으나 저들은 이내 추방하여 오가사와라 섬에 유폐시켰으니 어찌 그를 아껴서 도와준다고 하겠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 큰일'은 김옥균(1851~1894)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들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으킨 갑신정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84.10.17~19(음력)/1884.12.4~6(양력)].

조선이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한 것은 (갑신정변이 아니라) 임오군란 직후인 1882년 8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임오군란으로 흥선 대원군(1821~1898)이 재집권 하였으나 청은 봉기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납치한 후 중국 텐진 보정부에 억류하였다(1885년 8월 귀국).
- ② 임오군란을 수습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1882.8). 주된 내용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사죄단을 파견한다는 것이다(각 제4관/제6관). 또 공사관 보호의 명분으로 일본 경비병을 상주시키는 내용도 들어갔다(제5관).
- ③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청과 일본은 이듬해인 1885년(고종 22) 4월에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청과 일 양국 군대가 동시 철수하고, 동시 파병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1894년(고종 31) 동학 농민 운동 시 조선 정부가 청에게 원군을 요청했을 때 일본이 출병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13 - 신라 지증왕 대에 발생한 일

13. <보기>의 (가) 왕의 재위 기간에 발생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기록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 (가) 13년에 이 섬을 정벌하여 조선의 영토로 삼은 것이 오늘 우리 땅이 되게 된 시초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 당시 이 섬은 우산국이라는 별개의 독립한 나라였는데, 육지로 가장 가까운 곳이 수로(水路) 400리 가량 떨어진 강원도 울진뿐인데 충무공같은 해상의 전략가나 군함도 없이 이 우산국을 쳐서 무찌른 당시 이야기가 흥미롭다.

- 『별건곤』 -

- ① 불교를 공인하였다.
- ② 마한을 복속시켰다.
- ③ 왕호를 중국식 호칭인 '왕'으로 정하였다.
- ④ 남진 정책을 펼쳐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정답> ③

'기록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 (가) 13년에 이 섬을 정벌하여 조선의 영토로 삼은 것이 오늘 우리 땅이 되게 된 시초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 당시 이 섬은 우산국이라는 별개의 독립한 나라였는데, 육지로 가장 가까운 곳이 수로(水路) 400리 가량 떨어진 강원도 울진뿐인데 충무공같은 해상의 전략가나 군함도 없이 이 우산국을 쳐서 무찌른 당시 이야기가 흥미롭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출처 『별건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신라 지증왕(재위 500-514, 제22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의 일이다.

왕호를 중국식 호칭인 '왕'으로 정한 것은 지증왕 4년인 503년의 일이다. 이때 국호도 신라로 정하였다.

오답 해설>

① 신라에서 이차돈(506~527)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것은 법흥왕 14년인 527년의 일이다 (*528년 공인설 있음).

② 마한을 복속시킨 왕은 백제의 근초고왕(재위 346-375, 제13대)이다. 근초고왕은 재위 2년(347)부터 21년(366) 사이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 마한 지역을 복속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 하면 이후 근초고왕은 재위 26년인 371년에 한강에 접한 한산(위치와 관련해 여러 설 있음)으로 도읍을 옮기고 북쪽의 고구려와 계속해서 싸우는 한편 중국의 동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372, 근초고왕 27)하기 때문이다(『삼국사기』). 이와 같은 행보는 남쪽의 마한 지역이 복속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

④ 남진 정책을 펼쳐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것은 고구려 장수왕 15년인 427년의 일이다(평양 천도).

14 - 초기 국가, 고구려

14. <보기>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서 동맹이라 부른다. 그 나라의 풍속에 혼인을 할 때에는 말로 미리 정한 다음, 여자 집에서 본채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서옥이라 부른다.

- ① 함경도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다.
- ② 5부족 연맹체로, 왕 아래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을 거느렸다.
- ③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고, 제천 행사로는 무천이 있었으며, 족외혼, 책화 등의 풍습이 있었다.
- ④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정답> ②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서 동맹이라 부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 나라의 풍속에 혼인을 할 때에는 말로 미리 정한 다음, 여자 집에서 본채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서옥이라 부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0월 동맹'과 '서옥제'라는 혼인 풍속이 나온 것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는 초기 국가,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초기 국가,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로 왕 아래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을 거느렸다(기원전 1세기 경). 5부족은 소노부, 계루부, 관노부, 절노부, 순노부를 가리키며 본래 소노부가 왕을 하였지만 이후 계루부가 대신하였다(절노부는 왕비족). 왕의 종족 가운데 대가는 모두 고추가라고 불렸으며 여러 대가는 또한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을 두고 명단을 모두 왕에게 보고하였다.

오답 해설>

① 함경도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

③ 단궁, 가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고, 제천 행사로는 무천이 있었으며(매년 10월), 족외혼, 책화* 등의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책화(責禍):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산천을 중시하며, 산과 내마다 읍락의 경계가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읍락을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는 책화(責禍)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④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사출도**를 다스렸던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사출도(四出道): 부여의 지방 관할 구역을 가리킨다. 부여는 수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지방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중앙에는 가장 강력한 부족이 있고, 사방에는 그 지방에서 우세한 부족이 다스렸다. 부족장인 제가(諸加)[대가]가 관할하였는데 큰 부족으로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 등이 있었다. 처음에 제가는 부족의 대표적인 역할만 했으나 점차 귀족화되며 국가의 지배층이 되었다. 세력의 크기에 따라 수천 가(家) 또는 수백 가의 호(戶)를 지배하였다.

15 - 조선 시대의 과학 기술

15. 조선 시대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측우기를 사용하여 강우량을 측정하였다.
- ② 휴대용으로 작은 앙부일구를 제작하였다.
- ③ 당시 동아시아 의학을 종합한 의서인 『의방유취』가 편찬되었다.
- ④ 향약을 이용하여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 『향약구급방』이 편찬되었다.

정답> ④

조선 시대의 과학 기술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향약을 이용하여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 『향약구급방』이 편찬된 것은 고려 고종 18년인 1236년의 일이다. 단 이때는 상권만 편찬하였고, 이후 1251년(고종 38)까지 중·하권이 편찬되었다(총 3권).

오답 해설>

- ①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를 처음 만든 것은 조선 세종 24년인 1442년의 일이다.
- ② 앙부일구는 일종의 공중(용) 해시계로 세종 16년인 1434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시간을 측정하고 계절까지 동시에 알 수 있었으며 당시 종묘 외 대궐과 종로 네거리에도 설치되었다. 이천(1376~1451)과 장영실(1390년경~?)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신이자 천문학자였던 이순지(?~1465)라는 설도 있음]. 앙부일부는 이후 약간씩 변형되며 꾸준히 제작되었는데, 휴대용 앙부일구도 제작되었다.
- ③ 당시 동아시아 의학을 종합한 백과사전류 의서인 의방유취(醫方類聚)가 편찬된 것은 세종 27년인 1445년의 일이다. 동양 최대의 의학 백과사전이다.

16 - 1920년대('문화 통치기')의 사실

16.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민의 창달의 길을 강구하고, 교육제도를 개정하여 교화 보급의 신기원을 이루었고, 게다가 위생시설의 개선을 촉진하였다. ……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 대우를 철폐하고 동시에 조선인 소장층 중 유력자를 발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군수·학교장 등에 발탁된 자가 적지 않다.

- ① 치안유지법 제정
- ② 보통학교 명칭을 소학교로 개칭
- ③ 조선사상범 보호 관찰령 제정
- ④ 조선형사령·조선태형령 제정

정답> ①

'다른 한편으로 지방 자치를 실시하여 민의 창달의 길을 강구하고, 교육 제도를 개정하여 교화 보급의 신기원을 이루었고, 게다가 위생 시설의 개선을 촉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 대우를 철폐하고 동시에 조선인 소장층 중 유력자를 발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군수·학생장 등에 발탁된 자가 적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19년 9월 제3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1858~1936)가 이듬해인 1920년 봄에 발표한 '조선 통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정책 방침이다(1927년에 물러간 후 1929년에 제5대 총독으로 다시 부임). 1910년대의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군병력을 늘렸고 위장된 자치론을 이용하여 민족주의 세력을 분열시키고자 하였다.

치안 유지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1925년 4월의 일이다(5월부터 시행).

오답 해설>

- ② 보통학교 명칭을 소학교로 개칭한 것은 제3차 조선 교육령 때의 일이다(1938.3). 고등 보통학교는 중학교, 여자 고등 보통학교는 고등 여학교로 개칭되었다. 또 국어, 국사 과목이 필수 과목에서 수의 과목(선택 과목)으로 변경되었다.

③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 제정(· 공포)된 것은 1936년 12월의 일이다(1936.12.12). 치안 유지법 위반자 중 집행 유예나 형집행 종료 또는 가출옥한 자들을 보호관찰할 수 있도록 한 법령으로, 독립운동 관련자들을 계속 감시하기 위한 악법이다. 나아가 1941년 2월에는 실질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사상범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이 제정(· 공포)되었다(1941.2.12)(같은 해 3월 10일부터 시행).

④ 조선 형사령과 조선 태형령이 제정(· 공포)된 것은 1912년 3월의 일이다(1912.3.18)(각 조선 총독부 제령 제11호/제13호)(4월 1일부터 시행). 참고로 조선 태형령은 1920년 3월에 폐지되었으나 조선 형사령은 일제 강점기에 12번이나 개정되었으며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였다.

<17번 오답 해설>

② 응방(鷹坊)은 매의 사냥과 사육을 위해 두었던 관청이다(1275, 충렬왕 원년). 관리의 인사를 담당한 기구는 최우가 자기 집에 처음 설치한 정방(政房)이다(1225, 고종 12). 응방에 속한 관원들이 왕의 권력을 배경으로 횡포가 극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인사 담당 기구는 정방이었다. 정방은 무신 정권이 무너진 뒤에는 국가 기관으로 존속하였는데 충선왕, 충렬왕, 충목왕, 공민왕 때 혁파되었다가 다시 설치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왕 14년인 1388년에 폐지되었다.

③ 고려가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함에 따라 충렬왕 원년(1275)에 관제가 격하되었다. 또 이듬해인 충렬왕 2년(1276)에는 왕실 용어도 격하되었다[선지(宣旨) → 왕지(王旨), 짐(朕) → 고(孤), 사(赦) → 유(宥), 주(奏) → 정(呈)].

17 - 원 간섭기에 일어난 사건들

17. 원(元) 간섭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원의 도움으로 정치도감의 개혁은 성공하였다.
- ② 국왕 측근 세력이 응방을 통해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였다.
- ③ 고려의 풍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왕실 용어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 ④ 친원 세력은 고려를 원의 행정(行省)으로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정답> ④

원(元) 간섭기*에 대한 옳은 설명을 묻는 문제이다. 원 간섭기에 친원 세력이 고려를 원의 행정(行省)으로 만들고자 시도한 것, 즉 부원배들이 고려를 원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도록 획책한 입성책동(立省策動) 사건이 일어난 것은 모두 4차례로 충선왕 복위 때부터 시작하여 충혜왕 복위 때까지 약 30여 년에 걸쳐 단발적으로 제기되었다(첫 번째는 충선왕 복위 원년인 1309년, 두 번째는 충숙왕 10년인 1323년, 세 번째는 충혜왕 즉위년인 1330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충혜왕 복위 4년인 1343년). 4차례 모두 고려의 왕위 계승과 관련되어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때마다 고려 조정은 "고려의 국체와 풍속을 보존하라[不改土風]"는 원 세조 쿠빌라이 칸[재위 1260-1294, 몽골 제국 제5대 칸이자 원의 시조]이 남긴 '세조구제(世祖舊制)를 들어 이를 저지하였다.

*원 간섭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여러 설 [1259~1356(년)으로 보는 설, 1270~1356(년)으로 보는 설, 1273~1356(년)으로 보는 설]이 있지만 대체로 원종의 환도령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원종 11)부터 시작되어(개경 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한 1356년(공민왕 5)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답 해설>

①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한 것은 충목왕 3년인 1347년의 일이다. 하지만 부원 세력들의 반발로 정치도감의 본격적 활동은 3개월 만에 와해되고, 결국 2년 뒤인 1349년(충정왕 원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사실 정치도감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원 혜종(재위 1333-1368, 제15대)의 명령 때문이었다.

18 - 조선 후기 실학과 북학

18. <보기>에서 조선 후기 실학과 북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유형원은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토지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ㄴ. 이익은 전라도 부안의 우반동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다.
- ㄷ. 18세기 중엽 이후 청나라를 배우자는 학풍을 '북학'이라 한다.
- ㄹ. 박지원은 농업 관계 저술인 『과농소초』를 펴내기도 했다.
- ㅁ. 홍대용은 『우서』에서 지구 자전설을 주장하고, 다른 별들에도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피력했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정답> ②

ㄱ. 유형원은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토지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반계 유형원(1622~1673)은 『반계수록』에서 사·농·공·상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재분배하여 자영농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였다(균전론). 호구에 부과하던 역역을 토지에 일괄 부과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의 충실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ㄴ. 전라도 부안의 우반동에 칩거한 인물은 [성호 이익(1681~1763)이 아니라) 반계 유형원이다. 유형원은 혼란한 세상을 피해 32세에 부안 우반동에 들어와 52세에 사망할 때까지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반계수록』을 저술한 시기는 대략 1659년(효종 10)에서 1664년(현종 5) 사이로 추정한다.

ㄷ. 18세기 중엽 이후 청나라를 배우자는 학풍을 '북학'이라 한다. 옳은 설명이다. 북학론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학문으로 청의 문물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연암 박지원(1737~1805)이 박제가가 지은 『북학의』의 서문으로 작성한 글에 관련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실리론적(실용론적, 현실론적, 실학론적) 세계관인 '북학론'].

ㄹ. 연암 박지원(1737~1805)은 농업 관계 저술인 『과농소초』를 펴내기도 하였다(1798, 정조 22). 옳은 설명이다. 『과농소초』는 정조의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을 연암이 받들어 지은 농서(農書)이다. 책에서 농업 기술과 농업 정책을 아울러 논하고, 그 개혁책으로 한전법(限田法)을 제시하였다.

ㅁ. 담헌 홍대용(1731~1783)은 (『우서』가 아닌) 『의산문답』에서 지구 자전설을 주장하고, 다른 별들에도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른바 '무한우주론'을 피력하였다(1766, 영조 42)(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 『우서』를 지은 인물은 농암 유수원(1694~1755)이다(1729~1737 집필 추정).

이상에서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다.

19 - 과거제 도입

19. <보기>의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가)	(나)	(다)	(라)	
고려 건국	후삼국 통일	노비안검법 실시	시정전시과 시행	거란의 1차 침입

- ① (가) - 역분전 지급
- ② (나) - 12목 설치
- ③ (다) - 과거제 도입
- ④ (라) - 광군 설치

정답> ③

연표에서 고려가 건국된 것은 918년, 후삼국이 통일된 것은 936년(태조 18), 노비 안검법이 실시된 것은 956년(광종 7), 시정 전시과가 시행된 것은 976년(경종 원년), 거란의 제1차 침입이 있었던 것은 993년(성종 12)의 일이다.

[중국 후주(951-960)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것은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역분전이 지급된 것은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의 일이다. 개국 공신의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 ②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성종 2년인 983년의 일이다.
- ④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광군을 설치한 것은 정종 2년인 947년의 일이다. 이때 지방 농민으로 조직된 광군을 통할하기 위해 광군사도 조직되었다. 광군은 처음에 지방 실권자인 호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광군사는 이들 호족을 통하여 광군을 통할하였으나, 이후 광군이 주현군[지방군]으로 편입되면서 광군사가 직접 관장하기 시작하였다.

20 - 1960년의 주요 사건들

20.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ㄴ.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의결되어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ㄷ.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허정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ㄹ. 마산 시민들이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전개하였다.	

- ① ㄷ - ㄴ - ㄱ - ㄹ
- ② ㄷ - ㄴ - ㄹ - ㄱ
- ③ ㄹ - ㄷ - ㄱ - ㄴ
- ④ ㄹ - ㄷ - ㄴ - ㄱ

정답> ④

ㄱ. 해위 윤보선(1897~1990)이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8월 12일의 일이다(~1962.3.22).

ㄴ. 내각 책임제 개헌안, 즉 제3차 개헌안이 개헌이 의결된 것은 1960년 6월 15일이고(국회에서 통과된 당일로 공포·시행), 제5대 국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것은 같은 해 7월 29일이다(7·29 총선거). 참고로 이로써 장면 개각이 같은 해 8월 12일 출범하여 이듬해 5월 16일 박정희 주도의 군사 정변이 일어날 때까지 존속하였다('장면 정부' 또는 '제2공화국'으로도 부름).

ㄷ.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된 것은 1960년 4월 27일의 일이다(~1960.6.15)

ㄹ. 마산 시민들이 3·15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전개한 것은 1960년 3월 15일의 일이다(제1차 마산 시민 항쟁). 그리고 실종된 김주열(1943~1960)이 실종 27일째인 4월 11일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유기되어 마산 중앙부두에서 발견되자 재차 규탄 시위가 발생하였고(제2차 마산 시민 항쟁), 이는 곧 4·19 혁명을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ㄹ-ㄷ-ㄴ-ㄱ'이 된다.

- 이 상 -